

2025 가을과 겨울 고창!

문화를 읽는 창



균형의 순간, 문화의 시간

Gochang!
Culture a reading window



제암 고창문화관광재단

13
vol.



법인 재단 고창문화관광재단

소식지 <고창! 문화를 읽는 창>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함께 그려나가는 새로운 창(窓)을 말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이슈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 쓰는 고창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가을과 겨울 고창! 문화를 읽는 창

발행일 2025년 12월 17일

발행처 (재)고창문화관광재단

발행인 심덕섭

편집인 조창환

기획 이창섭

사진 고창문화관광재단

인쇄 (주)고려디자인

등록일 2020년 12월 15일

등록번호 제고창-바-00100호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 361 전북대 고창캠퍼스
문화관 2층

전화 063)561-1110

홈페이지 www.gctf.or.kr

ISSN 2733-9971

기획

06 흙·소리·색·결로 채운 고창치유문화축제

전통의 깊이를 치유로 확장하다

10 선운미디어갤러리

노란 지붕, 7가지 보물을 품다

대화

12 고창 식품산업의 미래 박생기 원장에게 듣는다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박생기 원장

16 방정순 명인에게 듣는 한땀 한땀 이어온 전통의 맥

여행

20 고창 서해랑길 길 위에서 고창의 숨결을 느끼다

26 고창, 느리게 걷는 여행의 기쁨

여행경비지원 '고창한밤' 여행기

29 고창의 품격을 담다. 고창 노동저수지 '꽃정원'



〈고창읍성 서문~전통예술체험마을 가는 길〉 사진 김민찬

소식

**32 고창에서 피어난 한복,
세계와 만나다**
2025 한복문화주간

36 고창에 피어나는 문화의 꽃
고창 문화살롱 <함께하는 이야기>



제 13호
표지이야기

**38 신선한 바람이 스며드는 가을,
동리시네마에서 만나다**
동리시네마 문화마실

40 공간소개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고창 서해랑 쉼터,
풀, 돌빛마루, 고창등학농민혁명기념관

**43 질문하는 세계유산,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육**
고창문화예술배움터 X 세계유산
그래서 예술학교

45 녹두로 차린 치유의 식탁
터치유 녹두 식문화 콘텐츠 프로젝트

**48 소리의 시간 안에서
고창을 다시 만나다**
고창 판소리 투어<시간을 걷는 소리: 판소리>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에서 열린 제3회 고창치유문화축제 중 줄타기 공연을 하는 명인의 모습.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한옥 기와 위 팽팽한 줄 위에서 부채를 높이 든 채 균형을 잡은 그 한 순간이 하늘과 땅, 전통과 현대를 잇는다.

사진 이기환

문화가 피어나는 고창, 함께 만드는 내일

고창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창문화관광재단 이사장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 고창문화관광재단과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의 끝자락, 전통예술체험마을에서 펼쳐진 한복문화주간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형형색색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전통놀이를 즐기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복 예절을 배우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 웃음 속에서 문화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전통이 현재와 만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고창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도시입니다. 갯벌과 고인돌, 판소리와 농악 등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 곳곳에 문화가 살아 숨 쉽니다. 하지만 문화유산은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가꾸어가는 살아있는 현재입니다. 재단은 올 한 해 치유문화축제, 작은 음악회, 고창한밤, 문화살롱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전통예술체험마을은 고창 문화예술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잡았고, 인바운드 관광사업은 세계에 고창을 알리는 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 모든 순간 함께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문화는 함께 누릴 때 더 아름답고, 함께 만들 때 더 풍성해집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재단은 군민 여러분 곁에서 더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의 문화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그 향기가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겨울 문턱에 선 지금, 고창의 고즈넉한 풍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유로 빛어낸 고창의 문화

고창문화관광재단 조창환 상임이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지던 10월, 전통예술체험마을 하늘 아래 한 줄기 줄이 펼쳐졌습니다. 줄 위를 걷는 명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숨을 멈추게 했고, 그 순간 우리는 문화가 주는 치유의 힘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3회 고창치유문화축제. 이번 축제는 법정문화도시 고창이 품은 치유의 가치를 세상에 전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통 줄타기가 선사한 긴장과 해방, 함께 호흡하며 느낀 공동체의 위로. 문화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을 회복시킵니다.

문화와 관광, 그리고 치유라는 큰 그림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엮어왔습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예절을 배우던 아이들의 웃음, 문화살롱에서 나눈 이웃들의 따뜻한 대화, 고창 서해랑길을 걸으며 마주한 고창의 자연. 작은 음악회의 선율이 마을 곳곳에 스며들고, 가가호호 프로그램이 문턱을 넘어 집집마다 문화를 전했습니다.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에서 함께한 2025 한복문화주간은 전통이 현재와 만나는 순간을 보여주었고, 외국인 유학생들과 나눈 한복 체험은 우리 문화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는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갈 때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치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문화를 만나고, 이웃과 나누며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문화가 삶 속에 스며들도록,

문화와 관광이 일상이 되는 고창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겨울이 찾아온 고창에 따뜻한 문화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의 깊이를 치유로 확장하다

흙·소리·색·결로 채운 고창치유문화축제

가을이 가장 깊어진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고창전통예술체험마을 일대는 말 그대로 ‘가을 축제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공연, 전통의 멋과 손맛을 담은 공예 체험, 그리고 전통놀이의 흥까지—고창만의 고즈넉한 분위기 위에 펼쳐진 축제는 방문객 9만 8천 명을 끌어모으며, 올해 가을을 장식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제3회 고창치유문화축제는 ‘흙·소리·색·결: 전통과 치유의 이음’이라는 주제 아래, ‘문화를 통한 치유’라는 고창의 대표 가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시간이었습니다. 전통예술체험마을 곳곳에는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감각적 치유 경험이 가득했습니다.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흙과 색: 13가지 치유 체험으로 오감을 깨우다

올해 치유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13가지 무료 치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모양성제 담성놀이를 마친 이들이 자연스럽게 축제장으로 발길을 돌리면, 가장 먼저 ‘향기치유’, ‘편백공예’, ‘전통 도예’, ‘천연 염색’, ‘전통매듭 맷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맞이했습니다.

편백나무 향을 들이마시며 잠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순간 그 자체가 이번 축제의 ‘가을 쉼표’였습니다. 이전 소식지에서 소개해드린 ‘공예주간’이 작품을 감상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축제는 직접 손을 움직이며 ‘흙을 만지고 색을 칠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물레를 사용한 전통 도예와 천연 염색 체험, 그리고 전통매듭 맷기 체험은 연일 긴 줄이 늘어설 만큼 뜨거운 인기를 끌었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자신만의 작은 작품을 남기며 웃음을 띠었습니다.

소리와 결: 전통의 흥과 오늘의 치유가 만나다

‘치유’가 반드시 고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명나는 ‘흥’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전통예술체험마을 마당에는 소리가 하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통예술체험마을 황토재〉

사자탈 퍼포먼스, 벼나놀이, 줄타기 공연이 펼쳐질 때마다 관람객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며 무대 위 한 장면 한 장면을 응원했고, 박수 소리로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7가지 보물찾기’, ‘천하장사 떡메치기’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에서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며 축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죠. 또한 ‘주막’ 부스에서는 전통 음료와 간식을 엽전으로 구매하는 게임형 체험이 도입돼, 아이들은 놀이하듯 축제를 즐기고 어르신들은 편안히 쉬어 갈 수 있는 아늑한 쉼터로 사랑받으며 예술적 감동과 마음의 치유를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고인돌 농악단 특별출연〉

'고창으로 떠나는 여행놀이터'

이번 축제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곳은 단연 '고창으로 떠나는 여행놀이터'였습니다. 이 특별한 공간은, 축제장에서 체험한 활동을 리플릿에 도장으로 찍을 수 있고 도장 개수만큼 엽전으로 교환하여 기념품과 음료 간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축제장 곳곳에 마련된 체험부스를 돌며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고 스탬프를 모은 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되어 축제의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아이들이 스탬프를 모으며 자연스럽게 여러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며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엽전 교환처'의 알록달록한 캡슐뽑기 기계 앞에서 어떤 기념품을 받을지 많은 설렘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엽전으로 아이들은 재미를 어른들은 추억을 되살리며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창, 문화가 치유가 되는 순간

축제 기간 동안 약 98,000명이 현장을 찾았고, 그중 5,000여 명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통문화라는 낯설지만 따뜻한 세계 속에서 쉼을 경험한 시간 그 자체가 이번 축제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고창문화도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각자의 일상 속에서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 속에서 위로와 쉼을 찾는 시간이 되었다”며 “고창이 ‘머무르면 치유되는 도시’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조창환 상임이사는 “전통예술을 매개로 한 치유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이 몸과 마음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지속 가능한 문화축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3회 고창치유문화축제는 ‘문화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으로 바꾼 자리였습니다. 전통의 감각과 현대의 감성이 만나 오감이 깨어나는 5일간의 경험은, 고창이 치유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글 송다영 사진 이기환



노란 지붕, 7가지 보물을 품다

선운미디어갤러리

선운
미디어갤러리
→

선운사 입구에서 만나는 15분의 '치유의 쉼표'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58-5
- 운영시간: 10:00~ 17:00
- 휴무일: 매주 월요일 휴관
- 문의전화: 063-560-8685

12호 소식지 '지역 공간 소개' 코너에서 짧게 소개되어 가장 많은 문의가 쇄도했던 곳, 바로 '선운미디어갤러리'입니다. 13호에서는 2페이지 기획 기사로 그 매력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선운사를 찾는 발걸음이 잠시 멈추는 곳. 붉게 타오르는 가을 단풍만큼이나 강렬한 '노란 지붕'의 건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은 고창문화도시센터에서 운영하는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선운미디어갤러리'입니다.



선운사 가는 길, 노란 지붕이 건네는 뜻밖의 선물

선운미디어갤러리는 본래 '세계유산도시 고창 사진 전시관'으로 사용되었던 유휴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고창이 보유한 7가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치유자원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선운미디어갤러리'는 '25년 4월부터 개관 이후 11월까지 내부 방문객 3만여 명이 찾아주신 선운사의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선운사에서 유일한 노란지붕에 외관과 좌우로는 문수사의 단풍길, 고창읍성의 맹종죽림이 그려진 거대한 벽화가, 후면에는 고창갯벌을 형상화한 '플랜트월'을 두르고 있어 '선운미디어갤러리'를 모르고 선운사를 찾은 관광객에게도 뜻밖에 추억을 선물해줍니다. 12호 소식지에서 초록빛 선운사를 만났다면, 이곳은 선운사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나는 첫 번째 '치유의 쉼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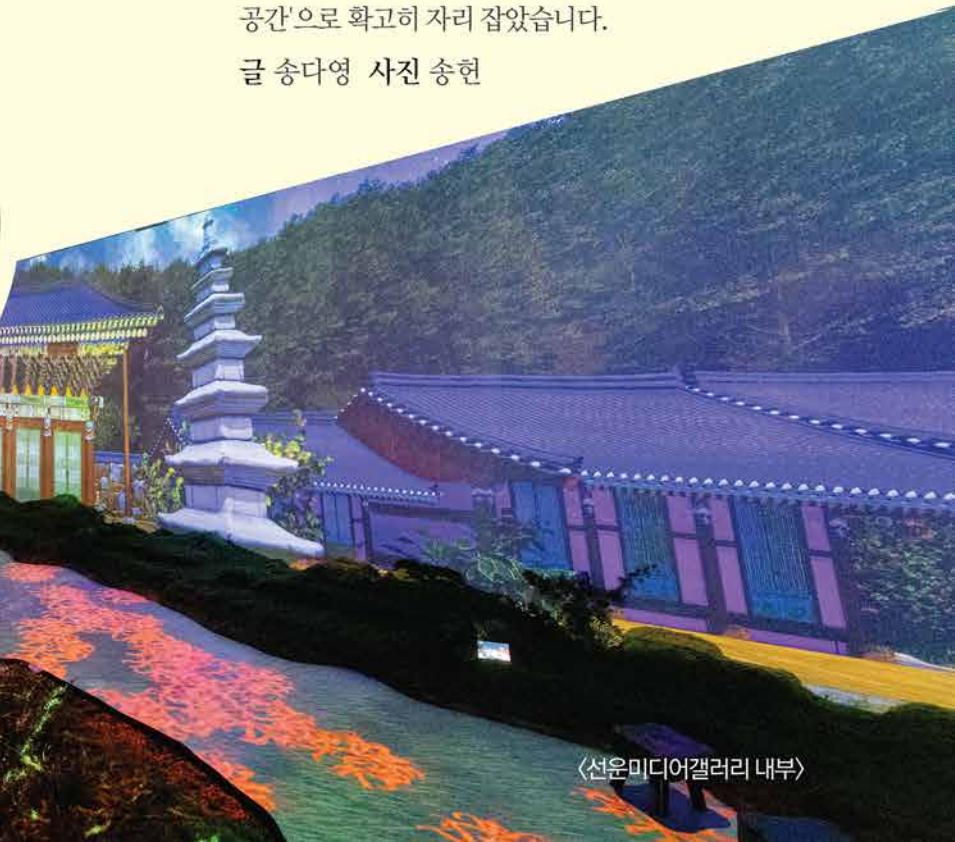
눈 앞에 펼쳐지는 고창의 7가지 보물

"와..." 갤러리 내부에 들어서면 낮은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사방을 둘러싼 거대한 스크린과 바닥까지 이어지는 영상이 관람객을 순식간에 다른 차원으로 이끕니다. 고창갯벌의 물결이 발밑을 스치고, 고인돌이 눈앞에서 거대하게 솟아오릅니다. 12호 기획 기사에서 만난 '신들린 판소리' 가락이 울려 퍼지고, '동학농민혁명'의 함성이 가슴을 뛰게 합니다.

약 15분간 상영되는 메인 영상은 고창의 7가지 보물을 디지털 미디어로 완벽하게 구현해냅니다. 선운산의 단풍을 보기 위해 고창을 찾은 관광객들은, "단풍 하나 보러 왔다가 고창의 7가지 보물을 전부 가슴에 담고 간다"며 "고창 여행의 완벽한 '인트로'이자 '아웃트로'"라고 극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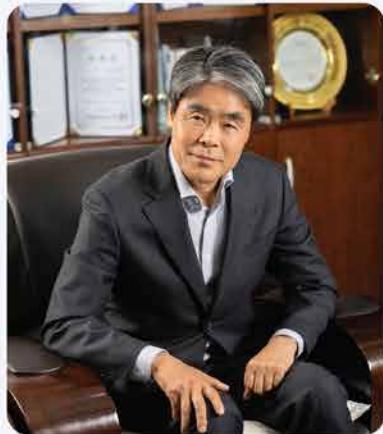
선운미디어갤러리는 고창의 유산이 '박제된 과거'가 아닌 '살아 숨 쉬는 현재'임을 증명하는 '치유문화 거점 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글 송다영 사진 송현



〈선운미디어갤러리 내부〉

고창 식품산업의 미래 박생기 원장에게 듣는다



박 생 기 원장
고창식품산업연구원

Q. 반갑습니다. 먼저, 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고창의 특산품인 복분자 산업을 모태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 200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애초 ‘고창복분자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다가, 2015년에는 ‘고창베리&바이오식품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구 분야 및 활동 범위를 확대해 제2의 도약을 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창식품산업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보다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창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연구와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과 식품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씽크탱크 역할을하게 된 것입니다.





Q.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과제는 무엇인가요?

노무현 정권 때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6차산업’이라는 말을 처음 썼던 곳이 고창 복분자 산업입니다. 나아가, 지역 내의 농축임수산업 매출을 만들어내는 구조에서 가공과 유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6차산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산업에 얹혀 있지 않은 열린 산업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생산만을 위한 기반조성에 그쳐서는 안 되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지자체와 협의해 가공과 유통, 관광 등 6차산업과 연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Q. 연구원 덩치가 두 배로 커진 만큼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은데요. 취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제 고향이기도 한 고창을 위해 굵직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는 데에 감사함이 큽니다. 중책에 따르는 부담감도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쌓아온 공직 경험과 경영전략실장으로서의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고창 식품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고창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생각입니다.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지역 특산물의 산업화 구조를 정비하고, 원스톱(ONE-STOP) 산업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두고 착수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고구마의 잎이나 줄기, 땅콩 껍질 등 농특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화와 친환경 자원순환 모델을 마련하여 식품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김치산업의 기술 지원 체계를 고도화시켜 나가는 것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들입니다.





Q.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단순한 연구기관을 뛰어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역 농가와 기업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 정책과 산업을 매개하는 가교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차 생산을 위주로 하는 고창이니만큼, 농생명 자원이 더 높은 부가가치로 전환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올해부터는 전북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과제로 들어가 있는 농특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한 화장품이나 의약품 소재 등이 만들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장어나 바지락 등의 부산물도 기능성 식품소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용적인 기술 개발과 현장 중심의 기획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내부 조직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것도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와 민·관·산·학·연의 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Q. 연구원 운영에 적용하고자 하는 원장님만의 운영철학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주민들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체감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허와 실이 있다면 과감히 걷어내고 실제로 '쓰이는' 연구원으로 전환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됩니다. 조직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과 사람 중심의 경영으로 군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Q. 끝으로, 고창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변화는 필수입니다.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지역 발전의 한 축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단지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함으로써 기회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함께 고창군의 미래 산업을 설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반드시 실질적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김형미 사진 고창식품산업연구원

국내최초 그린바이오산업과 신설(2026)

“건강기능식품 산업 현황 및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제2회 청암 그린바이오산업 컨퍼런스

일시 : 2025.12.11.(목) 장소 : 청암대학교 산학정보관 1층 Vision Hall

업무협약(MOU) 체결: 청암대학교, 순천시, 주케이앤파푸드, (유)더원푸드,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주최 및 주관: 청암대학교, 청암대학교 RISE 사업단, 순천시, 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학교



방정순 명인에게 듣는 한 땀 한 땀 이어온 전통의 맥



고창의 전통자수는 단순한 공예를 넘어, 수백 년을 이어온 가문의 역사이자 한국 전통문화의 살아있는 유산이다. 1940년생 방정순 명인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자수 가문의 맥을 잇는 마지막 세대로, 누에 재배부터 명주 제작, 자수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장인이다. 고창 상하면 신자룡길에 위치한 공방에서 오늘도 한 땀 한 땀 전통의 훈을 담아내고 있는 방정순 명인을 만났다.





방정순 명인 소개

1940년 고창에서 태어나 6·25 전쟁 시기 외할머니 하봉선, 어머니 채산이로 부터 자수를 전수받았다. 외갓집과 친정 모두 조선시대부터 궁에 자수를 납품한 벼슬집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영광, 함평, 순창 등지를 오가며 전통 자수 기법을 익혔다.

1998년에는 이학 진흥원장에게 사사받아 인물 자수와 용 수법 등 고급 기술을 습득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공모전과 전시 활동을 시작했다. 동국대 최고 지도자 과정 5년 수료, 고창미술협회 50년 이상 활동 등 왕성한 예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누에 재배부터 명주실 뽑기, 염색, 자수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전주 유산원, 전북대, 동국대 등에서 다수의 전시를 개최했다. 대표작으로는 '경작도', '사계분경도', '십장생도' 등이 있으며, 2005년 십장생도를 고창군립미술관에 기증했다.

고창 전통자수의 역사와 가치

고창 지역의 전통자수는 조선시대부터 궁중에 납품될 정도로 그 기술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방정순 명인의 가문은 대대로 전통 자수 기법을 전승해왔으며,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함평, 순창 등지에서 자수를 가르치며 지역 전통자수의 맥을 이어왔다.

특히 방정순 명인은 자연 염색과 전통 기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초충도, 화조도, 백수백복 등 전통 문양부터 농촌의 삶을 담은 경작도까지, 다양한 주제를 한국 고유의 자수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떻게 자수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외가집에서 외할머니한테 처음 배우고 어머님한테 지도를 받았습니다. 외갓집도 친정집도 모두 벼슬집이었는데, 할머니 외갓집은 조선시대부터 궁에 자수를 넣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는 영광 홍농읍 상하리 하복마을에 사셨는데, 저는 그곳과 고창 친정집을 걸어 다니며 자수를 배웠습니다. 외할머니께서 항상 "우리 대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그 말씀이 평생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자수를 배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힘든 적은 없었어요.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뛰어나서 하나 가르치면 둘을 해냈고, 지금도 돋보기 없이 밤에도 바늘귀를 꿰며 작업합니다.

다만 누에를 키우는 것은 정말 정성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누에는 '하늘이 아는 짐승'이라고 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뽕잎에 조금이라도 농약이 묻으면 다 죽어버리고, 초상집 다녀온 사람이 보기만 해도 안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누에 재배부터 명주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직접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누에 한 마리가 약 800m의 실을 뽑아냅니다. 저는 직접 뽕나무를 키우고, 누에를 사육해서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에서 실을 뽑아 합사하고, 쑥과 소다로 표백한 뒤, 지칭 등 자연 재료로 염색해서 자수 작업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십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고난도 수작업입니다. 혼이 들어간 실만이 진짜 수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한 과정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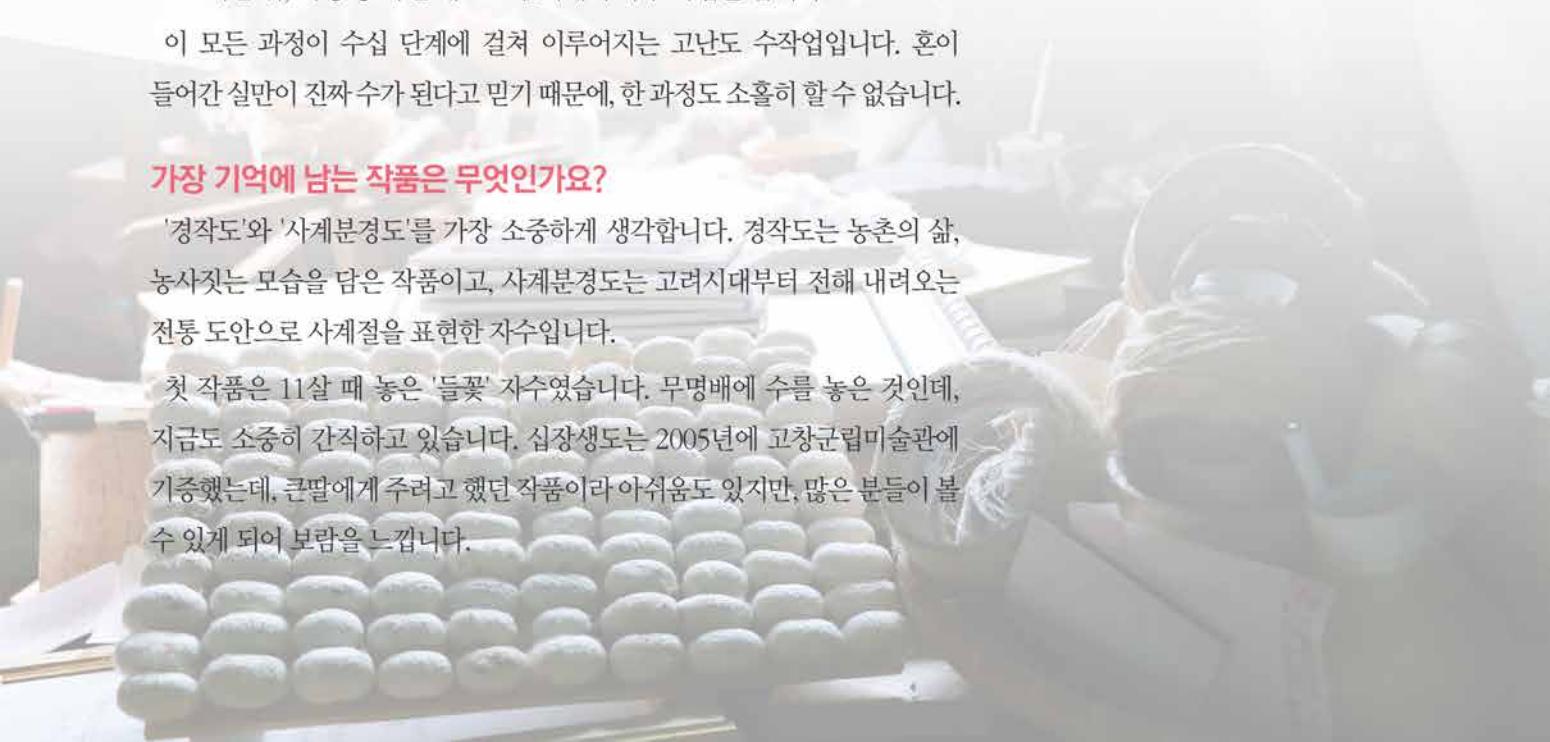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경작도'와 '사계분경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경작도는 농촌의 삶, 농사짓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고, 사계분경도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도안으로 사계절을 표현한 자수입니다.

첫 작품은 11살 때 놓은 '들꽃' 자수였습니다. 무명배에 수를 놓은 것인데,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십장생도는 2005년에 고창군립미술관에 기증했는데, 큰딸에게 주려고 했던 작품이라 아쉬움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XX



전시나 교육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전주 한옥마을, 전북대, 동국대, 전주 유산원 등에서 여러 차례 전시를 했습니다. 협회전은 매년 6~8회 정도 참여하고 있고, 올해도 여러 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와 고창 지역 학생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수와 누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손수건에 수 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누에 키우는 과정도 함께 보여드렸죠. 둘째 딸이 제 첫 번째 전수자이고, 손녀와 조카들도 일부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수를 배우려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꾸준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다 말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혼과 정성을 다 드려야 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마음먹어서는 안 되고, 내 모든 혼을 거기에 넣는다는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이 일은 돈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편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처음 배운 그대로 이어가야 하고, 정성과 꾸준함이 있어야 진짜 예술이 됩니다.

고창군민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전통은 한번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대를 이어야 한다는 외할머니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고창에서 전통자수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 김미화 사진 송현



고창의 전통자수는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수백 년을 이어온

문화유산이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이다. 방정순 명인은 그 변화의 흐름
한가운데에서 혼과 정성으로 한땀 한땀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85세의
나이에도 돋보기 없이 바늘귀를 꿰는 그의 손끝에서, 고창 전통자수의
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창다운 전통예술, 그 중심에 방정순 명인이 함께하고 있다.



고창 서해랑길

길 위에서 고창의 숨결을 느끼다

예로부터 산과 들, 바다 그리고 갯벌까지, 고창의 풍요로운 자연은 여행객들의 눈과 발을 사로잡아왔다. 그중에서도 서쪽 바다와 나란히 걷는 길, 서해랑길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발걸음들이 모이는 곳이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완주형 트레킹 프로그램 '수요일엔 서해랑길'은 6주간 무려 200여 명의 발걸음을 이끌며 '걸어서 즐기는 도시, 고창'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 그 대장정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스터 트레킹 with 서해랑길' 행사가 열렸다. 2025년 한 해 동안 서해랑길 41~43코스를 완주한 50인이 고창 전통예술체험마을에 다시 모여 서로의 여정을 축하하고 새로운 고창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을 보냈다.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무궁무진한 고창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보자.





찬란한 유산의 길, 서해랑길 위에서 고창을 만나다

한반도를 한 바퀴 도는 4,500km의 코리아둘레길. 그중 서해안을 따라 걷는 서해랑길의 고창 구간은 더 욱 특별하다. 고창의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부터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까지 7개의 세계적 보물을 품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서해랑길의 41, 42, 43코스는 고창의 이 다채로운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길이다.

41코스 '걷는 사람, 노을을 걷다' (19.8km, 6시간 30분)

구시포해수욕장의 고운 모래를 밟으면 시작되는 41코스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의 광활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여정이다. 특히 해안선을 따라 자갈, 모래, 조개껍질이 쌓여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 '쉐니어(Chenier)'는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길 위에서 만나는 살아있는 교과서, 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고창 자연유산의 생태적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주며,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갯벌 체험을 위해 방문할 정도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42코스 '트레킹 매니아, 고창을 걷다' (11.6km, 4시간)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리는 명승지, 선운산을 넘는 42코스는 고창의 굳건한 역사와 정신을 만나는 길이다. 천마봉 정상에서 탁 트인 절경을 마주하면 힘겨운 오르막의 수고가 눈 놀듯 사라진다. 눈 내리는 한겨울에도 붉은 꽃을 피우는 선운사의 동백나무 군락과 13m 높이의 거대한 도솔암마애불은 이 땅이 품고 있는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43코스 '문학과 함께 고창을 걷다' (18.5km, 6시간)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라 노래했던 미당 서정주의 시심이 깃든 질마재를 지나, 43코스는 고창의 풍요로운 인문학적 향기 속으로 여행객들을 이끈다. 43코스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독립운동가 차경석의 이야기, 판소리의 큰 어른인 국창 김소희의 생애를 만나볼 수 있다. 이들의 삶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고창이 품어온 살아있는 역사를 직접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서해랑길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

고창 서해랑길의 매력을 한층 더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한 리플렛이 공개됐다. 리플렛을 펼치면 41~43코스와 대표 명소가 한눈에 보이는 전체 지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각 코스별 구간 안내는 물론,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 선운사 등 코스 내 대표적인 장소에 얹힌 이야기가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람사르고창갯벌센터의 전시 해설, 갯벌 식물원 전기버스 투어, 어촌마을 갯벌 체험 등 서해랑길과 연계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선운사 템플스테이와 상하농원 같은 인근 숙박 및 편의시설 정보도 함께 제공해 여행자들이 고창에서 더 오래, 더 편안히 머물 수 있게 했다. 고창 서해랑 쉼터와 사업 지역 내에 위치된 리플렛을 길동무 삼아 고창의 자연과 문화를 더 생생하게 체험해 보자.

서해랑길 41-43코스

41 코스 구시포해수욕장 ★★

- 구시포해수욕장 10.2km 동호해수욕장 5.4km
- 서해안바람공원 4.1km 심원면행정복지센터

소요시간 6시간 30분 19.7km

42 코스 심원면행정복지센터 ★★★★☆

- 심원면행정복지센터 1.3km 화산교 5.8km 천마봉 3.4km
- 선운사 1.1km 선운산버스정류장

소요시간 4시간 30분 11.6km

43 코스 선운산버스정류장 ★★★

- 선운산버스정류장 1.6km 연기제 7.4km 미당서정주생가 6km 상포마을회관 6.1km 사포버스정류장

소요시간 7시간 21.1km

길 위에서 만난 고창의 사람들

지난 11월 15일, '마스터 트레킹 with 서해랑길'이 열린 전북천리길(고창읍성길)을 걷고 난 뒤, 고창 서해랑길 완주를 기념하는 뿌듯해보이는 얼굴들 사이로, 유난히 밝은 미소로 동료들을 챙기는 두 사람이 눈에 띄었다. 바로 '수요일엔 서해랑길'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고영수, 한미자 생물권 스토리텔러. 오늘은 인솔자가 아닌 참여자로 행사에 참석한 이들을 만나 길 위에서 만난 진짜 고창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Q. 두 분 모두 고창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생물권 스토리텔러이자 인솔자로서 서해랑길을 걸으며 느낀 '고창'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한미자: 서울에서 귀촌한 지 4년 차예요. 처음엔 고창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 생물권 스토리텔러에 지원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계가 주목하는 이 아름다운 땅의 가치를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이어졌어요.



한미자
생물권 스토리텔러

고영수
생물권 스토리텔러



고창은 선운사나 장어로 유명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계절마다 고창의 자연은 다른 얼굴을 보여주죠. 서해랑길을 걸으면 차로 지나칠 땐 결코 볼 수 없었던 들꽃, 대나무 터널, 갯벌의 작은 생명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직접 두 발로 걸어봐야 합니다.

고영수: 저는 고창에 정착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이 길을 걸으며 고창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고창은 세계자연유산 갯벌,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판소리와 농악 같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유네스코 7관왕 도시 아닙니까. 이 모든 보물이 서해랑길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위성 지도를 보고 41코스의 모래언덕 '쉐니어'를 보고, 풍천장어에 비유하며 소개를 해드렸을 때, 참가자들이 '고창이 이런 곳인 줄 몰랐다'며 즐거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Q. 오늘은 인솔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이 길을 걷고 계신데요. '마스터 트레킹' 행사에 참여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한미자: 오늘 행사는 완주자들만을 위한 축제이자 만남의 자리예요. 특히 이번 트레킹 코스는 고창읍성만 보고 스쳐 지나갔을 외지인들에게 고창의 로컬들이 다니는 진짜 산책길을 보여준 것 같아 만족스러워요.

고영수: '수요일엔 서해랑길'에서 만났던 전국의 참가자들을 다시 뵙고 싶다는 마음으로 신청했어요. 그리고 오늘 행사장에서 그분들을 다시 만났을 때 놀랍기도 하고 반가웠습니다. 길 위에서 맺은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니 봐요. 또 농악 연주와 함께 입장을 하고, 또 완주 메달과 인증서를 받으니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Q. 고창의 서해랑길을 걸으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한미자: 43코스 질마재길에서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를 치울 때였어요. 제가 먼저 나서서 치우려는데 모든 참가자가 당연하다는 듯 힘을 보태주셨어요. 그때 '아, 우리는 인솔자와 손님들이 아니라 같이 길을 걷는 동행자구나' 하는 뭉클함을 느꼈죠.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고영수: 저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참가자들이 생각나요. 땅볕과 폭우 속에서도 걷는 즐거움 자체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가 더 힐링을 받았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다독이며 끝까지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이 길의 진짜 매력 아닐까요.



Q. 고창 서해랑길을 찾을 예비 도보 여행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고영수: 20km가 넘는 긴 길이니만큼, 출발 전 든든한 식사와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고창하면 역시 장어 아니겠습니까? 힘든 여정을 마친 뒤 풍천장 어에 복분자주 한잔 곁들이면 최고의 회복제가 될 거예요(웃음). 부담 없이 방문하셔서 길과 사람이 주는 에너지를 맘껏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한미자: 저는 작은 시집 한 권을 챙겨오시라 권하고 싶어요. 코스 중간중간 쉼터에 앉아 현재를 만끽하는 경험이 걷는 경험만큼이나 좋거든요. 또 같이 온 분들과 시를 함께 낭독하는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고창 서해랑길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풍요롭게 하는, 그런 깊이를 가진 길이니 꼭 방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의 장이 된다. '수요일엔 서해랑길'부터 '마스터 트레킹 with 서해랑길'까지, 고창의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살아있는 이야기들은 고창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누구에게나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진짜 매력을 만나고 싶다면, 두 발로 직접 그 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글 박재린 사진 김민찬, 송현



고창, 느리게 걷는 여행의 기쁨

여행경비지원 '고창한밤' 여행기

'고창한밤'이란?

고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체류형 관광지원사업입니다.

"고창이 그렇게 깔끔하고 고즈넉하니 좋다고요." 부모님이 입이 닳도록 하시던 말씀이 궁금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정읍까지, 다시 버스로 갈아타 고창에 도착했을 때, 이 작은 도시는 첫인상부터 남달랐다. 터미널 옆 하나로마트는 신선한 식재료로 가득했고, 고창 전통시장 풍천수산에서는 풍천장어의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여행의 시작부터 고창은 풍요로웠다.



알메스테이, 시간이 머무는 공간

부안면 한적한 마을에 자리한 알메스테이는 오래된 한옥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독채 펜션이다. 이 국적인 카페 아르메리아와 붙어 있는 이곳은 문을 여는 순간부터 특별했다. 현관의 슬리퍼 바구니, 미관용 아궁이, 오밀조밀한 그릇들이 담긴 장식장. 하나하나 가주인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졌다.

안방에 짐을 풀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친구가 마산에서 만들어온 닭발, 하나로마트에서 산 삼겹살과 목살, 풍천수산에서 포장해온 장어까지. 복분자와 사이다를 1대 1.5 비율로 섞은 복사 한 잔이 더위를 식혀줬다. 사장님의 5시에 맞춰 피워주신 바베큐 불 위에서 고기와 장어를 구우며 친구들과 웃었던 그 시간. 푸른 하늘 아래 정원에서의 저녁 식사는 고창 여행의 첫 번째 선물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알메스테이는 더 편안해졌다. 햇빛에 바싹 마른 듯한 하얀 침구와 푹신한 토퍼가 하루의 피로를 녹여줬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하며 들른 카페 아르메리아의 직접 만든 청은 잎을 수 없는 맛이었다.



〈고창파머스마켓〉

고창파머스마켓과 선운사 템플스테이

다음 날 찾은 고창파머스마켓은 고창의 풍요로움이 집약된 공간이었다. 땅콩버터, 복분자주, 고구마 과자 등 세련된 디자인의 특산물들이 가득했다. 할머니께 드릴 땅콩 약과를 사며 "고창 정말 풍요롭다"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선운사 템플스테이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였다. MZ세대를 위한 휴식형 프로그램은 1인당 5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고요와 쉼을 선물했다. 에어컨이 빽빽한 방에서 수련복을 입고 대자로 뻗었던 오후, 저녁 예불에서 가사집을 따라 읽던 순간, 고창산 옥수수의 단맛에 감탄하던 공양 시간. 모든 것이 느리고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침 예불과 공양을 놓쳤지만, 체크아웃 후 다시 찾은 선운사에서 소원등을 달고 지장보살 호신불 염주를 구입했다. 보살님의 은덕이었을까, 남은 여행도 운이 좋았다.

고창에서 찾은 여유

선운사를 나와 멋밭쌈밥식당에서 숯불구이솥밥을 먹었다. 신선한 쌈 채소, 고소한 우렁, 감칠맛 나는 숯불고기. 11시 30분에 도착해 웨이팅 없이 들어간 것도 행운이었다. 식사 후 찾은 땡스덕 베르베르의집은 모로코 사막 같은 분위기의 카페였다. 차이티 라떼 한 잔을 마시며 고창 여행을 되새겼다.

들뫼풍경이라는 찻집에서 마신 복분자 빙수와 쌍화차, 고창읍성 옆 판소리박물관, 그리고 다음에 꼭 먹어보고 싶은 고창 수박. 2박 3일 동안 고창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보여줬다. 깔끔하고 고즈넉한 동시에 풍요롭고 다채로운 고창.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다.

고창은 느리게 걷기 좋은 곳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풍경이 아름답고, 멈춰 서도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곳. 다음엔 벚꽃 필 때, 또는 낙엽 질 때 다시 찾아오리라. 고창아, 잘 있어. 곧 다시 올게.

글·사진 이보람



〈베르베르의집〉



〈선운사 템플스테이〉

고창의 품격을 담다, 고창 노동저수지 ‘꽃정원’

Q.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창군은 세계유산 도시로 불리는 만큼 볼거리가 많은 지역으로 정 평이 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5월에 개방한 꽃정원이 꽤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던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창군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공원 팀장을 맡고 있는 유철호입니다.

고창 꽃정원은 관광객 1천만시대를 겨냥하여 고창 군민에게는 힐링 산책 공간을, 고창읍성을 찾는 관광 객들에게는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조성했습니다. 23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난해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올 봄부터 꽃정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을 통해 배수로와 관수시설, 동선 등의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약 10만m²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로, 고창 읍성 중심으로 노동저수지, 자연마당 등과 더불어 고 창에 새로운 관광벨트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도시공원팀장 유철호 인터뷰



Q. 작년에 이어 올가을, ‘2025 고창꽃정원 행 사’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이번 행사는 세계유산 고창읍성에서 펼쳐지는 모양 성제와 함께 연계해서 진행한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창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자연을 동시에 체험 할 수 있는 특별한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문화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후 거리가 가까운 전통시장과도 연계해서 장날에 맞춰 시장 투어 트레킹 코스를 마련하고, 단오 행사와 연계해서는 오색꽃창포로 머리감기, 염색, 꽃차 시음회를 즐기는 등 지속적으로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Q. 동화 속 같은 가을 꽃정원이 가족 나들이 명소로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행사의 성과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창은 고창읍성, 고창농악, 고인돌, 고창판소리 등 정적인 문화유산이 많은 고장입니다. 화려함이나 역동성 면에서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껏 산책할 수 있고 화려함을 만끽할 수 있는 꽃정원이 더욱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동선과 황토포장, 오솔길, 노동저수지와 연결한 수상 데크길 정비가 잘되어 산책하기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같은 이유일 듯 싶습니다.

물론 고창읍에서 접근성이 좋은데다 4계절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이 생겼다는 것도 한몫 했을 것입니다.

덕분에 이번 꽃정원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Q. 각 지역마다 부쩍 다양한 꽃 축제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타지역과 차별화 할 만한 고창 꽃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고창 꽃정원은 봄가을에만 집중된 단기간 계절꽃에 머무르지 않고 절기별로 다양한 꽃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4월에는 틀립과 비올라, 5월에는 꽃양귀비, 안개초, 금영화, 수레국화, 6~8월에는 오색꽃창포, 베이비가우라, 다알리아, 메리골드 등, 9~11월에는 팜파스그라스, 핑크뮬리, 국화, 좁은잎해바라기, 사루비아등 각 절기에 맞는 꽃들이 연중 하늘거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잠깐 보고 마는 꽃축제 장소가 아닌, 늘 그 자리에 존재하는 '정원' 개념의 힐링 공간인 것입니다.



Q. 대개 꽃 축제 하면 특정 계절에 국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 꽃정원은 어떤 대안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하시나요?

대부분의 꽃축제가 봄가을에 집중되어 여름과 겨울은 공백기 상태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창군은 4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욱 풍성하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꽃은 봄에 많이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중 피는 꽃 중 70% 이상이 여름에 피는 여름꽃입니다. 고창군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꽃정원 오솔길에 여름꽃으로 산수국과 개화기간이 긴 맥문동을 심고자 3개년 조성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겨울꽃으로는 그라스 종과 열매가 있는 종의 식물을 식재해 '겨울정원'으로 조성하여 향후 사진작가들의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Q. 고창 꽃정원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또는 비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고창 꽃정원이 지금은 키가 작은 꽃들로 드넓게 채워진 평면형 화단에 가깝습니다. 높낮이가 다양한 교목류와 관목류, 다양한 다년생초화류를 섞어 심어 입체형 화단으로 조성해서 보는 재미와 즐거움을 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은 하천을 끼고 있는 만큼 수중식물과 수변식물 식재와 더불어 하천 조경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 벌, 나비 등 다양한 곤충들이 찾아들 수 있도록 밀원식물도 식재할 생각입니다. 나아가, 2000m² 규모는 치유 목적의 허브정원으로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식재한 식물들이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나면 고창 컨셉에 맞는 여러 조형물과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찾을 수 있는 고창만의 힐링 공간으로 순차적으로 탈바꿈해 갈 것입니다.

Q. 고창 꽃정원과 연계해서 보고 즐길 만한 고창 지역의 또 다른 명소 또는 볼거리가 있다면 소개 바랍니다.

고창군은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중 고창갯벌은 심원면, 해리면, 부안면 3개 면 일대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서로 섞이는 기수역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다 모래갯벌, 펄갯벌, 혼합갯벌 등 갯벌 유형이 다양해 많은 생물종의 서식처가 되고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또 고인돌공원과 접해 있는 고창운곡암사르습지는 국내에 드물게 저층산간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인간의 간섭이 사라진 자리에 자연이 스스로를 치유해서 복원된 곳으로, 지금은 습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많은 동식물들이 함께 공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Q. 고창 군민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창 꽃정원은 단순히 꽃을 보는 축제 공간이 아닌 자연과 예술, 사람이 담긴 공간입니다. 고창읍성과 자연마당, 노동저수지와 연결된 레이트 코스로 각광 받고,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명소로 성장하여 추후 지방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김형미 사진 고창군





2025 한복문화주간 고창에서 피어난 한복, 세계와 만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한복문화주간'의 일환으로,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에서 '고창에서 피어나는 한복'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바르게 입고, 자연스럽게 누리는 한복문화'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관광객과 외국인 유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한복의 아름다움과 전통문화의 깊이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복 입고 즐기는 전통문화 체험

전통예술체험마을 곳곳에서는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참가자들로 가득했다. 무료 한복 대여를 통해 부담 없이 한복을 착용한 방문객들은 고운 저고리와 화려한 치마, 단아한 두루마기를 입고 전통예술체험마을 곳곳을 누볐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복의 다채로운 색감과 우아한 실루엣이었다. 원광대학교 유학생 40여 명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한복을 입으니 한국 문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한복예절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바른 자세로 앉아 절하는 법을 배우며 한복에 담긴 전통 예법을 익혔다. 다도 세트가 놓인 한옥 공간에서 강사의 설명에 귀 기울이는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진지함이 묻어났다. 한복소품 만들기 체험에서는 형형색색의 매듭과 노리개, 장식을 활용해 각자만의 한복 액세서리를 완성했다. 금빛 자수가 놓인 화려한 한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손끝에 집중하며 전통 매듭을 엮는 모습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장면이었다.

야외 잔디마당에서 펼쳐진 전통놀이 체험은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였다. 연두색과 분홍색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투호와 제기차기, 팽이치기를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다. 전통 놀이기구를 손에 든 채 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한복이 더 이상 '불편한 옷'이 아닌 '함께뛰놀 수 있는 옷'으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토존에서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줄을 섰다. 귀여운 캐릭터 포토 프레임 앞에서 알록달록한 색동 한복을 입은 세 자매와 엄마가 V자 포즈를 취하는 모습, 솔향재(천연염색) 현판 앞에서 손수 만든 한복 소품을 들고 활짝 웃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고창의 가을 햇살 아래 한복의 색감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가을 음악회

10월 25일 오후, 전통예술체험마을 풍요재 앞 마당에는 300여 명 이상의 관객이 모여들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가을 음악회'를 관람하기 위해서다. 한복을 입은 관객들이 의자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는 가운데, 무대 위에서는 한복을 입은 성악가 4인이 열창했다.

1부 무대를 연 것은 테너 김태형, 김준성과 바리톤 박은원, 황규태, 소프라노 안성민 등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하는 성악가들이었다. '경복궁 타령'으로 문을 연 공연은 '거문도 뱃노래', '신아리랑', '장부가', '아름다운 나라' 등 한국 전통가곡의 정수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오페라 아리아 '라 돈나 에 모빌레'와 '네순 도르마'는 가을 하늘 아래 울려 퍼지며 전통예술체험마을을 오페라 극장으로 변모시켰다.



'향수', '친구', '우정의 노래', '걱정말아요 그대' 등 대중가요 무대에서는 관객들도 함께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하나가 되었다. 한 관객은 "한복을 입고 우리 노래를 듣으니 더욱 감동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부 무대의 주인공은 월드뮤직 양상을 '투론(TUR ON)'이었다. 2020년 결성된 투론은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악 연주자 2인과 한국 클래식 연주자 2인이 만나 탄생한 독특한 양상을로,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이라는 콘셉트를 선보였다.

클래식 기타, 신디사이저, 카슈가르 루밥, 도이라 등 동서양의 악기가 어우러지며 무대 위에서 펼쳐진 음악 여정은 한국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거쳐 터키, 아랍권, 스페인, 남미까지 이어졌다. 'Torimning siri'와 'Dutor bayoti' 같은 우즈베키스탄 전통곡의 이국적인 선율은 관객들을 중앙아시아 사막으로 안내했고, 피아졸라의 'Libertango'는 열정적인 탱고 리듬으로 가을 오후를 뜨겁게 달궜다.

'Spanish Medley'에서는 스페인 기타의 정열적인 선율이, 'Habibi+Dudu'에서는 중동의 신비로운 멜로디가 펼쳐졌다.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RE, arirang'은 한국 전통 선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으로, 한복 문화주간의 주제인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음악으로 완성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양상을 투론의 연주에 화답했다.



세계유산도시 고창, 한복으로 세계와 소통하다

이번 한복문화주간의 특별한 의미는 고창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 사업과의 연계에 있었다. 재단이 추진 중인 인바운드 사업을 통해 유치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 체험과 공연 관람에 참여하며, 고창의 문화적 매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원광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40여 명은 한복을 입고 가을음악회, 소품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하얀 한복을 입고 선글라스와 쟁 넓은 모자로 멋을 낸 외국인 참가자는 전통예술체험마을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기며 "한복은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주는 옷"이라고 말했다.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7 가지 보물(고창 판소리, 고창 농악 등)과 한복문화를 결합한 이번 행사는, 고창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일상으로 스며드는 한복문화

3일간의 한복문화주간을 통해 고창문화관광재단은 한복이 특별한 날에만 입는 의상이 아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천연염색을 활용한 한복 소품 만들기는 생활 속 한복의 실용성을 보여주었고,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한복이 세계인과 소통하는 문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고창읍성과 판소리박물관 초입에 위치한 전통예술체험마을은 2025년 개관 이후 고창의 대표적인 문화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한복문화주간은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문화적 정체성과 한복문화를 연결하여, 지역 대표 문화 프로그램으로 육성하는 첫 발걸음이었다.

전통예술체험마을 마당에 올려 펴진 음악과 웃음소리, 한복 자락을 휘날리며 뛰노는 아이들, 한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하는 외국인들, 고창에서 피어난 한복은 이제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의 꽃이 되어 2025년 가을 고창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기억될 것이다.

글 이창섭 사진 이지훈



〈한복체험〉

고창 문화살롱 <함께하는 이야기>

고창에 피어나는 문화의 꽃



고창문화관광재단 문화산업팀에서 운영한 '고창 문화살롱 <함께하는 이야기>'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고창군민 여러분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특별한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현실 속에서 대도시 대비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했던 고창군에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체험과 강의를 듣는 것을 넘어, 참여자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며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사람들이 소통하고 성장하는 공간과 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미래 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소중한 자료를 확보하고 고창의 문화 생태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고창 문화살롱 <함께하는 이야기>'는 자체 기획 프로그램과 지역 내 '살롱지기'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각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획되었으며, 문화예술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창군민들은 일상 속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움과 활력을 찾고 있으며, 문화적 만족도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유한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고창 지역에 활기찬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연결망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에서는 단순히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고창의 아름다운 문화가 지속적으로 꽂피울 수 있도록 돋는 소중한 여성의 사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고창군민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창의 문화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글·사진 한지혜



고창 문화살롱 <함께하는 이야기> 체험



전통과 감성, 복을 담다

살롱 보자기

추석 전 전통 보자기 매듭 공예 체험



'쉼표 같은 하루'를 담는 감성 자수가방

바쁜 일상 속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쉼을
선물하는 감성 프랑스 자수 체험



8월 여름방학 특집 프로그램

무더위에 지친 관내 초등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원데이클래스 체험



향기 한 잔, 마음 한 잔

막걸리 심부름 그림책을 활용한 원예 체험



쿠키위에 그린 마음

쿠키 아이싱 베이킹 체험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으며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체험

동리시네마 문화마실

신선한 바람이 스며드는 가을, 동리시네마에서 만나다

저소득층 이거나 또는 평소 거리가 멀어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 아동,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창읍·공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십시일반 방과후 돌봄활동 단체와 연계하여 치유문화 접근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고창지역자활센터는 고창군 저소득 주민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대부분 지속적인 생계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감 속에서 근무하고 있어 문화 향유기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동리시네마 문화마실'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 관람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소속감을 회복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창군 3개의 장애인 시설(장애인주간아용시설, 느티나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대상으로 배리어 프리 버전 치유영화를 상영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취약계층이 문화 향유를 통한 치유와 즐거움이 제공되었습니다.

2025년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며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연계하여 “정신건강 치유문화나눔 동리영화제” 문화마실로 걷는 치유의 길이 3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치유문화와 정신건강 콘텐츠를 결합하여, 군민들에게 지역사회 내 치유와 정신건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대산면 분회 남성재 남·여 회원 어르신들이 잠시라도 치유하는 시간을 드리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 접근성이 어렵고 소외계층인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건강을 위한 늦 가을 문화마실로 회원 어르신들의 심신의 위로와 상호 공경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따뜻한 계절의 만남 가을의 감성을 담은 동리시네마에서 치유문화도시 고창군민들의 일상에 작은 쉼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사업 개요

'동리시네마 문화마실'은 영화 관람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문화 소외 계층(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치유문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단순 상영뿐 아니라 상영관 대관, 다과 제공 및 희망하는 영화 관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람 경험이 풍성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 대상 및 지속계획

이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여러 문화취약계층 단체를 아우릅니다.

또한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소외된 군민들에게 정서적 치유와 문화 향유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3. 반응 및 호응

참여자들의 만족감뿐 아니라, 프로그램 취지(치유, 문화 향유)가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4. 함께 만드는 치유의 기록

동리시네마는 지역과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문화공간입니다. 군민들과 함께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글·사진 오정준

소식

공간소개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문화유산과 전통예술을 보전·전승하며,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살아있는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전통예술 체험공간입니다.

고창읍성 진서루(서문) 아래 위치한 이곳은 전통 한옥 6동과 초가 1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자기 명인, 전북무형문화재 자수장, 천연염색 명장, (사)동리문화사업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 등 고창의 명인·명장들과 함께하는 도예, 판소리, 자수, 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온 가족이 함께 전통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며 평생 간직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고창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명소입니다.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서문2길 20-8

● 운영시간: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
동절기(11월~2월) 09:00 ~ 17:00

● 휴무일: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

● 문의전화: 070-4277-1607(관리동)



〈황토재〉



〈솔향재〉



〈풍요재〉

고창 서해랑 쉼터

서해랑길은 전남 해남 땅끝탑에서 인천 강화를 연결하는 109개 코스, 1,800km의 걷기 여행길로, 서쪽(西)의 바다(파도)와 함께(랑)걷는 길을 의미한다. 서해랑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드넓은 갯벌과 황홀한 일몰, 종교와 문물교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전북 고창은 41, 42, 43코스와 고창 서해랑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품

고창 예술거리 한가운데 자리한 ‘품’은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방문객들에게는 특별한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거점 공간이다. 지역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화실 공간을 대여한다. 다양한 원데이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된 ‘품’은 고창 예술거리를 둘러보는 방문객들에게 지역 예술가와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중거리 당산로 147-4
- 운영시간: 치유문화도시 고창 누리집(<https://gccc23.co.kr/>) 실시간 현황 확인
- 문의전화: 070-4175-6805



돌빛마루

돌빛마루는 고창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창작품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며,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를, 방문객들에게는 특별한 기념품과 선물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79(돌빛마루)
- 운영시간: 치유문화도시 고창 누리집(<https://gccc23.co.kr/>) 실시간 현황 확인
- 문의전화: 070-4175-6805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세계기록유산 무장포고문 등 유물전시는 물론 디지털 홍보영상, OX 퀴즈 모니터, 포토존, 해설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체험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다. 동학농민혁명이 민주주의 출발에 끼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역 정체성과 상징성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곳이며 기념관 옥상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선웨이드 시설과 벤치 기능을 갖춘 화단을 조성해 지역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꾸며졌다.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2
- 운영시간: 10:00 ~ 17:00
- 휴무일: 매년 1월1일, 매주 월요일
- 문의전화: 063-560-2444





〈인천강 병바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고창문화예술배움터 x 세계유산 그래서 예술학교

질문하는 세계유산,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육

‘그래서예술학교’는 고창의 7가지 유네스코 등재 유산(고인돌, 갯벌, 판소리, 농악,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공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입니다.

세계유산을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질문의 시작점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기억과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감각으로 다시 발견하고 해석하는 교육을 실천합니다.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12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유산에 담긴 생태적 가치,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 문화다양성 등을 감각적으로 배우고 창작하며, 치유와 공존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글 이승우·이지연

'그래서예술학교' 대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세계지질공원 아트 트레킹

알고보니, 병바위

병바위의 지층과 풍경을 따라 걸으며, 지구의 시간을 예술로 마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질 자원을 예술적 시선으로 관찰·표현하며 자연과의 연결을 경험합니다.

고창읍성 어린이 탐사 프로그램

모양해찰단

어린이 스스로 보고, 듣고, 만지며 고창읍성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탐사형 프로그램입니다. 고창읍성의 역사와 공간을 감각과 언어로 경험하고 표현합니다.



생물권보전지역 X 시 워크숍

세계유산 조화로운 삶의 기록

세계유산과 함께한 삶 속 기억을 시로 써내려가는 따뜻한 기록의 시간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경험과 이야기를 시와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를 모아 주민 시집으로 출판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청소년 실천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 펄럭이다

유네스코학교(영선중학교,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 청소년 대상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재해석하고, 기후위기 메시지를 창작하는 실천형 예술교육입니다. 평등, 생명, 연대의 가치를 환경 이슈와 연결해 탐구하고, 실크스크린으로 시각화합니다.



녹두로 차린 치유의 식탁



고창문화관광재단은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위기 대응 치유 프로젝트 <터치유(TOUCH YOU)>를 추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녹두'를 주제로 한 식문화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다.



본 사업은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라는 치유문화도시 고창의 비전 아래 추진되었다. 치유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한 치유의 손길을 지역사회 곳곳에 확장하고 지역의 삶을 문화예술로 어루만지며 지역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예술을 감상과 체험의 영역에 묶어 두지 않고, 지역사회의 오래된 문제에 응답하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실천적 문화 치유 모델로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지정형 분야 중 '식문화 콘텐츠 - 녹두' 부문은 고창이 품은 역사적 자산인 동학농민혁명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의 의미를 현재의 식탁 위로 소환했다. 음식은 가장 일상적인 매체이자 공동체의 기억을 소환하는 강력한 언어다. 이러한 접근은 동학을 지나간 역사적 사건이 아닌 현존하는 '삶의 감각'으로 되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크리에이터와 대표 레시피 소개

녹두를 매개로 한 치유 기반의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두 팀이 선정되었다. <지속가능발전 연구소>의 안승현 대표와 <밀과 보리>의 조영돈, 김누리 대표다. 서로 다른 스타일과 감각을 지닌 두 제작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녹두가 가진 역사성과 영양, 그리고 지역성을 풀어냈다. 이들은 세 번의 시식회를 통해 관계자들과 일반인들의 평가를 받았다. 시식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녹두 음식을 맛보며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할 '평등·연대·공존'의 문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녹두라는 매개로 지역의 역사와 공명할 수 있는 레시피가 최종 개발됐다. 크리에이터와 대표 레시피를 소개한다. 그 외 개발된 레시피는 고창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와 문화도시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gccc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녹두장군 퇴적암 버거

재료

기본 반죽, 고창산 통녹두, 양파, 물, 고창 천일염

토핑 구성

생무채, 돼지고기 등심전,
고창 갯벌 바지락전,
고창 고인돌 버섯전, 고창 김치전,
산적꼬지+종이 깃발(무장포고문),
조리유(압착 올리브유 사용)



기본 생무채 통녹두반대떡

- 통녹두를 깨끗이 씻어 하루 동안 불린다.
- 껍질째 믹서에 갈아 반죽을 만든다.
(녹두껍질은 해독과 식이섬유 역할을 한다.)
- 양파, 물, 천일염을 넣어 농도를 조절한 뒤 숙성한다.
- 무는 곱게 채 썬다.
- 천일염, 식초, 스테비아로 가볍게 절여 고명으로 준비한다.
- 예열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통녹두 반죽과 생무채 고명을 올려 손바닥 크기로 통녹두 반대떡을 만든다.

돼지고기 등심전

- 얇게 썬 돼지고기를 소금, 후추, 참기름으로 간하여 하루 동안 숙성한다.
- 녹두가루를 묻힌 뒤 계란물을 입히고 중불에서 노릇하게 부친다.

안승현(지속가능 발전연구소 대표)

안승현 대표는 녹두를 활용해 한식 기반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를 제안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약선 한식'으로 녹두의 맛과 건강적인 이점을 살려 레시피를 개발했다. 전통적인 조리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개발된 레시피 중 '녹두장군 퇴적암버거'는 윤곡람사르습지 홍보관의 체험으로 개발되어 선보인다. 지역 공간·관광·교육 요소와의 연계를 시도 하며, 관광콘텐츠로의 확장성이 크다.

고창 갯벌 바지락전

- 바지락을 손질해 물기를 제거하고 잘게 다진다.
- 다진마늘, 다진양파, 다진청양고추, 다진쪽파, 맛술, 생강가루, 소금, 후추로 밀간한다.
- 녹두가루와 계란을 섞어 반죽을 만든 뒤 기본 반대떡과 비슷한 크기로 부친다.

고창 고인돌 버섯전

- 표고버섯의 물기를 제거한 뒤 얇게 썬다.
- 천일염과 참기름으로 간을 한다.
- 녹두가루와 계란물을 입혀 구워낸다.

녹두 김치 반대떡

- 익은 김치를 채 썬다.
- 고춧가루, 청양고추, 다진대파, 스테비아로 양념한다.
- 녹두가루와 물을 더해 반죽을 만든 뒤 부친다.

버거 조립 - "녹두장군 버거"

- 미리 만들어둔 녹두 반대떡 → 등심전 → 바지락전 → 버섯전 → 김치전 순으로 쌓는다.



조영돈, 김누리 ('밀과 보리' 대표)

조영돈, 김누리 대표가 운영하는 '밀과 보리'는 고창의 곡물과 채소를 활용한 브런치 메뉴를 선보이는 로컬 카페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녹두를 브런치 메뉴에 담아 풀어낸다. 익숙하지만 새롭고,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메뉴로 구성됐다. 젊은 세대의 식습관과 취향을 고려해 동학의 메시지를 '먹는 경험'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했다.



녹두 뇨끼

재료

삶은거피녹두 200g, 우리밀 30~50g, 달걀 노른자 1개

만드는 방법

- 1 삶은 녹두를 매셔 또는 절구에 으깨준 뒤 분량의 노른자와 밀가루를 넣고 치대면서 반죽을 만든다.
- 2 너무 질면 밀가루를 조금씩 추가해서 손에 묻지 않을 정도로 반죽한다.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식감이 질겨지니 주의)
- 3 반죽을 긴 가래떡 모양으로 만든 뒤 1cm~1.5cm의 두께로 자른다. (무늬를 내고 싶다면 포크를 이용하여 자른 반죽을 살짝 눌러 빗살무늬를 만든다.)
- 4 냄비에 물을 충분히 붓고 소금을 한 큰술 넣어 팔팔 끓으면 3의 녹두뇨끼를 넣는다.
- 5 뇨끼가 물에 뜨면 건져내고, 서로 붙지 않도록 올리브오일을 뿌린다.
- 6 예열된 팬에 오일을 두른 뒤 삶은 뇨끼를 노릇하게 앞뒤로 굽는다.



글 조은진·최은성
사진 김양범, 장민조

Tip
뇨끼를 구워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파마산)치즈를 뿌리거나
크림소스 베이스의 소스에 함께 드셔 보세요.

고창 판소리 투어 <시간을 걷는 소리 : 판소리> 소리의 시간 안에서 고창을 다시 만난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난 가을, 세계유산도시 고창을 배경으로 판소리와 역사, 그리고 일상의 여행을 결합한 치유형 문화탐방 프로젝트 ‘고창 판소리 투어 <시간을 걷는 소리 : 판소리>’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 고창에 존재한 성곽·인물·예술·자연을 단순한 관람이나 안내의 차원을 넘어 지역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적 경험으로 도살리려는 시도였다.

‘치유문화도시’라는 고창의 비전을 가장 일상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구현한 투어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고창읍성〉



〈신재효 고택〉

왜 ‘판소리’이며, 왜 ‘고창’인가?

판소리는 고창이 가진 가장 대표적인 문화적 언어다. 신재효 선생의 고택, 판소리가 태어나고 다듬어진 공간, 그리고 읍성의 성벽과 골목길 곳곳에 남아 있는 삶의 흔적들은 고창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다.

판소리는 단순한 공연 장르가 아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슬픔과 기쁨, 시대의 현실과 공동체의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언어이자 기록이며, 기억이자 삶이다. 따라서 ‘판소리’를 통해 고창을 읽는 일은 지역의 역사와 현재를 ‘귀로 듣고, 걸음으로 체화하는’ 방식의 가장 깊은 감각적 경험이 된다.



〈신재효 고택〉

소리가 이끄는 길, 성곽 위에서 다시 열린 시간

프로그램은 고창읍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참여자들은 성곽의 돌담 사이를 걸으며 명창의 소리를 들었고, 문화해설사의 이야기를 따라 천년의 시간을 오가듯 고창의 역사 속을 천천히 걸었다.

문화유산 속에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과거를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여기에서의 몸과 감각으로 경험하는 일이다.

공연장이라는 경계를 넘어 ‘소리’가 자연과 공간, 사람의 발걸음과 만나는 순간은 많은 참여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전통을 손끝에 담다, 체험으로 확장된 감각

투어의 마지막 코스는 고창읍성 서문에 아래에 위치한 전통예술체험마을에서 진행된다.

갓, 부채 등 판소리의 전통적 이미지를 시각화한 키링 만들기는 전통 공예를 단순한 체험 아이템이 아닌 ‘지역의 기억을 손으로 받아 적는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가족 단위 참여자들은 공연 - 해설 - 체험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세대가 함께 지역의 전통을 감각하는 시간을 보냈으며, 현장에 온 외국인 관광객들 또한 판소리를, ‘한국의 전통과 교감하는 언어’로 경험했다.

지역의 문화는 어떻게 치유가 되는가

고창 판소리 투어는 문화가 지역의 정체성 회복과 마음의 회복을 동시에 지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판소리는 시대의 고단함을 품고 흘렀던 소리였고, 읍성은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품고 서 있던 공간이었다.

그 두 가지 문화가 만난 이번 프로그램은 고창의 시간을 치유의 감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였다. 지역의 역사와 예술, 일상의 경험을 연결해 문화가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공동체의 회복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고창의 소리는 계속된다

〈시간을 걷는 소리 : 판소리〉는 단순한 투어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의 재발견 → 경험 공유 → 감정의 회복 → 문화적 치유의 확장이라는 장기적 문화 가치의 흐름을 제시한 첫 번째 사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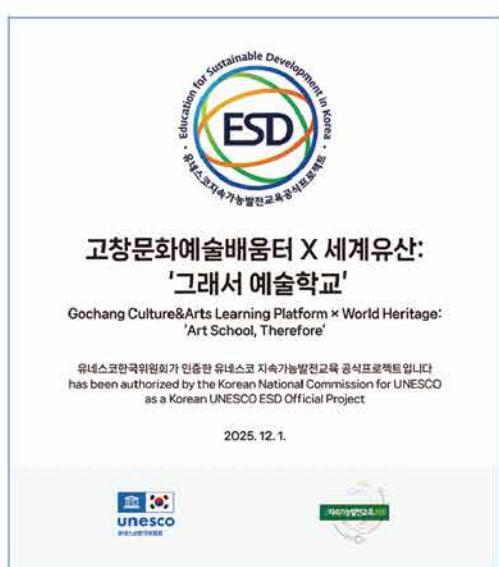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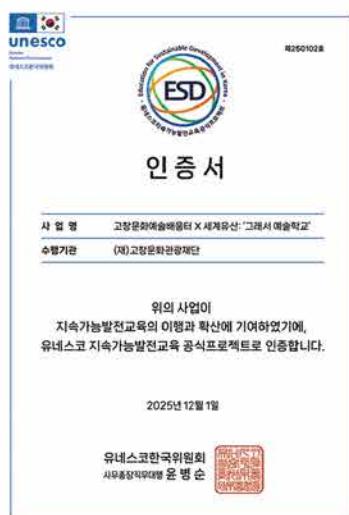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도 전통문화가 ‘보존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방식으로 치유문화도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창의 소리는, 그래서 계속된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함께 듣는 사람들 속에서 고창의 내일이 다시 쓰일 것이다.

글 유정선 사진 고창문화관광재단



〈갓 키링 만들기 체험〉



‘그래서 예술학교’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 선정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진행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고창문화 예술배움터 × 세계유산: 그래서 예술학교’가 2025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확산하는 우수 교육 모델을 선정해 부여하는 제도로써 공익성, 지역성, 확장 가능성, 파트너십, 교육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한다.

‘그래서 예술학교’는 고창군이 보유한 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고인돌, 갯벌, 판소리&농악,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을 교육 자원으로 삼아 지속가능발전(SDGs)과 세계시민교육 가치를 예술 활동을 통해 배우는 지역밀착형 교육 플랫폼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현장에서의 감각적 경험으로 이어지는 배움을 통해 학습자가 지속가능한 삶의 감각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천하도록 돋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 세대를 포괄하며, 노인, 발달장애인, 정보 접근 취약계층 등 다양한 참여자를 적극 포함하는 포용성 교육 체계, 지역 주민·교사·예술가·기획자 등이 함께 운영하는 거버넌스 워킹그룹 ‘그리고’, 세계유산 현장을 그대로 수업공간으로 활용하는 ‘찾아가는 치유문화 배달’ 방식 역시 ESD의 우수 실천 구조로 인정받았다.

조창환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지역의 유산을 통해 시민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주체가 되는 학습 환경을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균형의 순간, 문화의 시간

고창 겨울 별빛 마을 전통예술체험마을 사진 김민찬

소식지〈고창! 문화를 읽는 창〉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함께 그려나가는 새로운 창(窓)을 말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이슈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 쓰는 고창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www.gctf.or.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gctf1110>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ochang_gctf/